

“초여름 밤의 낭만, 함께해요”

무주산골영화제 개막식
내일 등나무운동장에서 열려

아름다운 무주 속 초여름의 낭만 영화제, 제7회 무주산골영화제 개막식이 내일 오후 7시, 무주등나무운동장에서 열린다.

먼저 영화제 개막식 전, 참석한 영화계 주요 인사들이 소개되는 그린카펫 진행 후 2016년부터 4년째 개막식 사회를 맡으며 무주산골영화제와 깊은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 배우 박철민, 김혜나의 진행으로 이어진다.

이 날 개막식에는 올해 신설된 '넥스트 액터' 주인공 배우 박정민이 참석하며, 한국장편영화 경쟁부문 '창' 섹션 '뉴비전상' 심사위원인 이동하(영화사 레드피터 대표), 장률(영화 <군산: 거위를 노래하다> 감독)과 '영화평론가상' 심사를 맡은 김병규 영화평론가가 참석한다.

또한 영화 <막다른 골목의 추억> 최현영 감독과 주연 배우 최수영, 타나카 순스케, <항거: 유관순 이야기> 조민호 감독과 배우 김예은, <형사 Duet>와 <M>을 연출한 이병세 감독이 참석한다.

더불어 <뷰티풀 데이즈>, <아워 바디>, <준하의 행성> 등 7회 무주산골영화제 상영작들의 감독과 출연 배우진들이 참석하며, 이와 함께 감독원(영화 <송환> 감독), 방은진(간원영상위원회 위원장), 주진숙(한국영상자료원장), 양익준(배우 겸 감독), 황승언(배우) 등 영화인들이 참석해 개막식을 빛낼 예정이다.

이어지는 개막 축하 공연에는 전 세대의 마음을 울리는 감동적인 목소리의 소유자, 가수 양희은이 초여름 밤 무주등나무운동장에서 낭만적인 무대를 펼칠 예정이며, 다음으로 개막작인 <불가사리> 합합 리브트 (feat. MC 메타)가 상영된다.

그간 고전영화와 다양한 음악 장르와의 협업을 통한 새로운 시도로 특별한 개막작 전통을



무주산골영화제 개막식이 내일 오후 7시 배우 박철민, 김혜나의 진행으로 열린다.

만들어온 무주산골영화제는 올해, 2000년 국내 정식 수입되어 개봉한 첫 북한 영화인 신상옥, 정건조 감독의 <불가사리>(1985)와 대중음악 최전선이라 할 수 있는 합합 음악을 결합시켜 역대 파격적이고 합한 개막작을 선보일 예정이다. 역대 무주산골영화제 총 4편의 개막작 총 연출 및 공동 연출을 맡아 완성도 높은 개막작을 선보여 온 김태웅 감독과 윤세영 감독이 올해도 참여했으며, 한국 합합계의 전설 MC 메타가 음악감독과 더불어 DJ 홍군 및 래퍼와 보컬 총 8명과 함께 공연을 맡아 기대를 모은다. 영화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제7회 무주산골

영화제는 5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9일까지 5일 동안 25개국 101편의 영화 상영과 더불어 10cm(십센치), 소란, 옥상달빛 등 다양한 뮤지션들의 공연과 넥스트 액터 전시, 하이브로우 대표 이천희와 이세희, 배순탁과 변영주 토크 등 다채로운 이벤트가 함께 펼쳐진다.

무주등나무운동장과 무주예체문화관, 덕유산 국립공원, 향로산 자연휴양림 등 전라북도 무주군 일대에서 즐길 수 있는 제7회 무주산골영화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화제 공식 홈페이지(www.mjff.or.kr)를 참고하면 된다.

영화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제7회 무주산골 /무주=전문기자

부안문화원, 매창문화제 성료... 사진전·농악공연 등 큰 호응

부안문화원(원장 김영렬)은 조선시대 최고의 여류시인 이매창을 기리기 위해 지난달 31일 '매창문화제'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매창의 묘소가 있는 매창공원에서 개최된 이날 행사는 오전 11시부터 변산예찬 시화전, 부안 옛 사진전, 매창집만들기 체험, 전통놀이체험 등 다양한 상설 전시체험 행사가 진행됐다.

오후 1시에는 제 48회 매창학생백일장대회 및 매창학생사생대회가 열려 장래의 이매창을 꿈꾸는 학생들이 시와 그림을 뽐냈다.

오후 3시에는 부안농악 판국 등으로 명성을 높이고 있는 예술단체 '타무'가 관객의 어깨

가 들쭉이게 하는 농악공연이 펼쳐졌고, 부안 문화원과 자매결연을 맺고 다양한 교류를 하고 있는 '도봉문화원 예술단'이 참여해 무대의 열기를 높였다.

이날 행사에는 권익현 부안군수와 이한수 부안군의회의 의장 등 전국 각처에서 300여명이 참석했다.

권익현 군수는 "이매창은 조선의 인물이지만 그녀의 시는 현재 우리의 삶을 밝혀주고 있다"며, "오늘날 시간을 내 별빛 속에서 빛나는 매창 시비를 꼭 감상해보시길 추천한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대학교박물관이 오는 13일까지 스타센터(아트갤러리)에서 단오부채 만들기 '바람은 불어야 제맛이다'를 진행한다.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 되새겨요”

전주대, 13일까지 단오부채 만들기 '바람은 불어야 제맛' 진행

전주대학교박물관(관장 홍성덕)은 오는 13일까지 스타센터(아트갤러리)에서 단오부채 만들기 바람은 불어야 제맛이다를 진행한다.

단오부채 만들기는 한국대학박물관협회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잊혀지는 단오의 세시풍속을 알리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진행하는 세시 이벤트이다.

누구나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으며, 자신만의 부채를 꾸미고 만들면서 잊혀지는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문화와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다.

또한 스타센터 아트갤러리에서는 단오부채 만들기뿐만 아니라 3.1운동 100주년 기념 특별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도 관람할 수 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 특별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사)한국대학박

물관협회가 주관하고 전주대학교박물관에서 운영하는 전시회로 3·1운동과 관련된 성화, 미술 작품, 유물 등이 전시돼 있다.

박현수 학예연구실장은 "전주대박물관에서는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시민들의 역사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전시와 답사, 체험 등을 준비해 역사를 널리 알리고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대는 3·1운동 100주년 기념 특별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전라북도 독립운동 유적지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특히 지난 24일에는 한강 이남 최초의 독립만세운동지인 군산을 답사하며 군산근대역사박물관, 동국사 등을 둘러보았다.

/장은성기자

전주대, 내일 패션쇼 개최... 8개 스테이지서 123벌 작품 소개

전주대학교 패션산업학과(학과장 박현정)는 오는 5일 스타센터 하림미션홀에서 패션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We Are The New Black'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패션쇼는 2019년 전주대 패션산업학과 졸업 작품 패션쇼로, 패션의 메인 색상이자 트렌드 컬러를 의미하는 검은색(black)에 새로움(new)을 더해 졸업생의 도전이 새로운 패션 트렌드를 만든다는 의미를 담았다.

90분 동안 총 8개 스테이지에서 123벌의 작품이 소개된다.

19세기 초 한복과 양복의 만남과 카무플라주 패턴의 현대 한복을 보여주는 Hello Mr. Sunshine, 밝은 레트로 분위기의 Clueless, 세련된 도시적 느낌의 City in a Veil, 아담고 몽환적인 Beyond Gender, 자유분방한 스트리트 감성

의 Carnaby Street, 환경을 생각한 무대 Black Out & In, 파란색을 주제로 한 Blue Hole, 18세기 로코코시대를 새롭게 재현한 Salon de Paris 까지 다양한 주제와 개성 있는 패션작품을 선보인다.

전주대 패션산업학과는 2000년 개설된 이후 매년 창의적이고 완성도 높은 작품을 선보이며 패션 업계와 지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왔다. 올해도 다양한 작품으로 전주대 구성원들과 패션업계 그리고 지역민이 즐길 수 있는 무대를 마련했다.

한편, 전주대 패션쇼에는 패션산업 발전과 패션 전문가 양성을 위해 패션그룹형지, 롯데백화점 등의 기업이 참여하며, 우수작품상 시상도 함께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캠핑하기 딱 좋은 곳...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